



하남산단관리공단 현장소통 간담회

광주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박흥석)은 지난 24일 관리공단 2층 소회의실에서 입주기업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양동구 청장은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해 세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청장은 이어 복합 경제위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입주기업 대표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최저저렴세율 인하 요청, △이월공제세액 증액분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 포함, △지방소재 기업의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성수 기자



광주·전남·전북 라운지, 전체 운영회의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지난 24일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이하 라운지)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광주시, 전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호남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용산역 라운지에서 전체 운영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호남지역 3개 광역지자체와 9개 상공회의소(여수·광양·목포·순천,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가 협력을 강화해 라운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전남·전북 지자체 및 상공회의소 주요 관계자들이 대부분 참석해 라운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호남지역 기업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회의실 시설 개선 등 부분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최권범 기자



광주교통공사, 지역인재 양성 현장 진로 체험

광주교통공사는 27일 광주시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지역의 철도도목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지역 고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선로 시설물 유지관리 현장 진로체험’을 펼쳤다.

차량기지 내 정비고선에서 펼쳐진 이번 체험학습에는 전남공업고등학교 소속의 학생 10여명이 참여, 레일 절선 시 응급조치 방법 등 다양한 실무 기술 교육을 접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각종 장비를 직접 다뤄보며 향후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선배 엔지니어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진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 관계자는 “지역 학생들이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철도도목 현장 경험을 제공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산소방,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캠페인

광주 광산소방은 전통시장 등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난 24일 송정5일시장 일대에서 소방통로확보훈련·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사진)

소방통로확보 훈련은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시민들의 소방차 양보 의식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밀집 지역에서 매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의용소방대원이 함께 참여하여 소방통로확보 훈련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밀집지역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차 근절 홍보 △긴급차량 출동 시 양보 의무 홍보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물품 배부 등이다.

광산소방 관계자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성현 기자



혈액원·동·남·광산구 가정어린이집연합 협약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최근 광주 동구·남구·광산구 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생명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헌혈의집에서 정기적인 헌혈과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사진)

혈액원과 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인연은 2021년 5월 북구 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의 생명나눔 협약 및 헌혈 홍보캠페인 활동으로 시작됐다. 이후 2023년 7월 서구 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의 협약 체결, 올해 5월 남구, 동구, 광산구와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 17일 5·18민중항쟁 44주년 기념 행사에서도 시민헌혈 홍보캠페인에 참여하며 헌혈문화 확산에 힘썼다.

주요역 광산구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광주의 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다함께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광산경찰, 청소년 비행 예방 야간 합동순찰

광주 광산경찰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3일 광산구 월곡동 일대에서 ‘사이버도박·마약·절도 등 위기 청소년 비행 행위 예방’을 위한 야간합동 순찰을 진행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사진)

이번 순찰은 최근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공원 내 음주소란행위가 많다는 신고에 따른 것으로 학교전담경찰관, 기동순찰대, 월곡지구대, 외국인자율방범대 등 30여명이 함께 순찰에 참여했다. 광산경찰은 이같은 야간합동순찰을 지난달부터 월 2회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순찰은 저녁 시간대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햇살공원을 시작으로 다모아·달빛산정·기쁨공원과 무인 점포 등 밀집 지역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들에게는 낯선 환경에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112신고 요령, 다국어 통역서비스, 사이버도박·마약 범죄피해 예방법 등을 홍보했다.

정성현 기자



어르신 업고 튀어·노면색깔 유도선... 임영웅 ‘영웅담’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다. 톱 가수 임영웅이 10만명을 불러 모은 ‘아임 히어로 - 더 스타디움(IM HERO - THE STADIUM)’ 관련 미담이 속출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26일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이번 콘서트에서 임영웅뿐 아니라 스태프들이 각종 영웅담을 빚어냈다. 진정한 ‘영웅시대’인 셈이다.

관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임영웅과 소속사 물고기뮤직의 배려는 이미 이전 콘서트에서도 유명했다. “K팝 그룹들이 이를 본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아이돌 판매에 짝 걸렸다.

이번엔 스태프가 솔선수범하며 앞장섰다. 지난 25일 공연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한 진행요원이 업고 이동하는 모습이 소셜 미디어 등에 사진과 영상으로 퍼진 것이다. 최근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tvN ‘선재 업고 튀어’ 제목을 가져와 ‘어르신 업고 튀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 ‘류선재’를 위해 굿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임술’에 스태프를 빚낸 것이다.

임영웅은 26일 공연에서 해당 진행요원에 대해 ‘히어로’라며 공개 언급했다. 그는 “어제 우리 연료하신 어르신을 업은 진행요원이 한 분 계신다. 여기 2층에 계시다고 들었다. 고맙다. 정말 멋진 일을 하셨다. 진행하시는 모든 분이 친절하게 진행해주셨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뉴스

김호중 소속사, 폐업 수순 밟나... “임직원 전원 퇴사”

트로트가수 김호중(사진)이 음주행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생각엔터는 27일 “이번 김호중 사태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저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건 관련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당사는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 협의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할 생각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협력사에게도

또 이번엔 역시 중장년 층을 위해 용이한 동선짜기에 대해 고민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형 공연장의 객석을 찾는데 수월하도록, 고속도로 노면색깔 유도선을 연상케 하는 색깔 줄을 서울월드컵경기장 주변 일대에 자세히 그려놓았다. 자신의 구역 색깔에 맞춰 줄만 따라가면, 해당 좌석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26일 한 때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 예상치 못한 날씨 변화에 대비해 팬덤 영웅시대 상징색인 하늘색의 품질 좋은 우비도 대량으로 준비했다.

임영웅은 축구 팬들에게 화두였던 ‘잔디 보호’에도 앞장섰다. ‘축구 사랑’으로 유명한 임영웅은 지난해 4월 이곳에서 열린 K리그 ‘FC 서울 대 대구 FC’ 경기에 시축자로 나선 적이 있는데 잔디 훼손을 우려해 축구화를 신고 나서 화제가 됐다. 그런 임영웅이기에 경기장 측에서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라운드 한가운데에 섬처럼 중앙 무대를 설치해 집중도를 높였다.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그 무대 주변엔 온통 천으로 둘러쌌는데, 미디어아트 같은 각종 조명·영상 연출을 위한 하얀 캔버스 같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최근 한 트로트 가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업계가 혼탁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임영웅과 그의 스태프들 그리고 질서 정연한 팬덤 영웅시대는 그런 가운데 소중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뉴스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혔다. 또 “당사와 김호중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현재 생각엔터엔 배우 손호준 김광규, 개그맨 허경환 등이 속해 있다. 현재 생각엔터 홈페이지는 접속이 안 되고 있다.

이곳의 대표와 직원들은 김호중의 음주 운전 행소니 혐의를 덮으려고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뉴스